

☰ 홈 ? !뉴스 ? !뉴스 ? !학술, 연구

포스텍, 국내외 학술대회서 잇따라 수상 ‘괘거’

대학원생들 ‘대림대학원논문상’ 주요상 휩쓸어

2012년 10월 22일 (월) 15:55:11

백수현 기자 ✉ qor88@unn.net



▲ 왼쪽부터 차례대로 김기석 교수, 한세광 교수, 쉰 카이(Xu, Kai)씨, 소병진씨, 한지훈씨, 정아름씨.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 포스텍(POSTECH, 포항공대) 교수와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학술대회 등에서 연달아 괘거를 올리고 있다.

최근 김기석 물리학과 교수가 과학기술문화 저변 확대와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상북도가 수여하는 ‘신진과학기술인상’을, 한세광 교수가 과학기술진흥 유공자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 학술대회 수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인 쉰 카이(Xu, Kai, 지도교수 허종)씨는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방사능폐기물을 처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리조성의 화학적 안정성과 처리능력’으로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소병진씨는 중국에서 개최된 ‘국제 비결정질고체 물리학회(The X I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hysics of Non-Crystalline Solids)’에서 UV-LED로 여기(勵起)되는 형광체가 들어간 유리 복합체를 만들어내 최우수 포스터 논문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화학공학회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화학공학분야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대림대학원논문상’ 주요 수상자로 포스텍에 재학생들이 이름을 올렸다.

화학공학과 한지훈씨(지도교수 이인범)가 ‘불확실한 운영비용과 탄소세를 고려한 CCS 기반시설의 전략적 계획’이란 논문으로 촉매 및 공정분야 우수상을, 정아름씨(지도교수 이건홍)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 다양한 구조를 가진 산화구리 입자 합성(Morphology-controlled synthesis of CuO nano- and microparticles using microwave irradiation)’이란 논문으로 화공신소재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 한국대학신문) iuxq;00ofx t/voo/ofu*!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